

호남 등 재생에너지 접속 제한 완화... 신규 사업 길 열린다

정부 '2030년 전력망 혁신대책' 마련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해제
사업자 공용배전망 보강 제도 개선

그동안 송배전망 병목현상으로 신규 사업 진입이 막혀 있던 호남 지역 등 전국 주요 계통 포화 지역의 재생에너지 접속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가 기존 전력망 건설을 기다리는 대신 기존 인프라 운영 방식을 재설계해 2030년까지 100GW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전력계통 혁신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이상 수용을 위한 전력망 혁신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내달 1일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해제하고, 충청 일부 지역의 신규 접속도 허용할 방침이다. 동해안 지역은 '동해안~신가평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있다. /뉴시스

초고압 직류송전(HVDC) 1단계' 준공 시점인 2027년 상반기 중 해제될 예정이다. 계통관리변전소는 전력망이 포화되면 연결된 발전 설비 운영을 제한하는 변전소다.

우선 재생에너지 특성에 맞춘 유연한 접속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발전기의 정

격용량'을 기준으로 계통 접속 여부를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태양광 출력이 수용량을 일시 초과할 때 출력을 제어하는 조건부 '유연접속(Non-firm access)'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배전선로의 태양광 접속 한도를 기존 14MW에서 16MW로, 변전소 접속 한도를 50MW에서 60MW로 상향해 별

도 망 건설 없이도 호남권에서만 2.6GW의 태양광 수용량을 추가 확보한다.

또 전력망을 물리적으로 증설하지 않고 도 ESS 등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해 계통 수용량을 늘리는 비증설 대안을 본격 도입한다. 사업자가 접속용량을 초과해 설비를 설치하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용해 기존 용량 이내로 관리하는 '자율접속 제도'도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이에 사업자들은 계통 정격용량의 2~3배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송배전망 포화 지역에 ESS를 설치해 낮 동안의 태양광 발전량을 충전하고 밤에 방전하는 '비증설 대안(NW As: Non-Wire Alternatives)'을 추진해 2030년까지 배전망 ESS로 3GW, 변전소 ESS로 1.6GW의 추가 접속 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력망 접속권만 선점한 채 사업을 진행하지 않던 '하수·지연 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미 약 9GW 규모의 접속권을 회수한 정부는 장기 지연 중인 해상 풍력 사업 등의 접속 시기를 선제적으로 연기·조정해 호남에서만 2030년까지 10GW 이상의 접속권을 추가 회수할 방침이다.

또 2027년 1월부터는 선착순 방식의 망 배전을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화(RPS)' 경쟁입찰 낙찰 사업자에게 계통 접속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접속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이외에도 신규 접속 시 초기 사업자가 공용배전망 보강 비용을 전액 부담하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한국전력공사가 먼저 투자한 후 이용 발전사업자들이 용량에 따라 분담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수용량이 송전 기준 119GW에서 171GW로 52GW, 배전 기준 84GW에서 110GW로 26GW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호남권 송전단 수용량은 37GW에서 64GW로 늘어나 심각했던 송배전 병목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확보된 여유 용량은 10월 1일부터 기존 대기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되며, 신규 사업 접속 신청은 2027년 1월부터 재개된다.

김성한 기후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새로 전력망을 건설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전력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것"이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1년 만에 지난 2024년 9월부터 막힌 재생에너지 계통 제약을 해제하고, 호남의 재생에너지 신규 접속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새로운 L
대한민국 농협

NH농협금융

SINCE 1965

NH농협생명

60년을 넘어 한결같이
고객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밝혀 온 NH농협생명.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모두의 인생을 비추겠습니다.

NH농협생명이
든든한 빛이 되겠습니다

대망같이

NH농협생명

현대차그룹, 글로벌 채용 속도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높인다

美 'HMG 테크 토틀런트 포럼' 마무리
로보틱스·자율주행 등 기술 비전 공유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글로벌 기술 인재들과 미래 모빌리티 기술 비전을 공유했다.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로보틱스, 소프트웨어(SW) 등 미래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기술 인재 확보에 달린 만큼 글로벌 채용 경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미국 실리콘밸리 산호세 맥에너지 컨벤션 센터에서 'HMG 테크 토틀런트 포럼'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계를 넘어 함께 만들어가는 성장(Go Beyond Together)'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북미 지역 기술 인재와 그룹 임직원 등 약 380명이 참석해 AI, 로보틱스, 자율주행, 스마트 제조, SW·IT, 수소·에너지·배터리 등 6개 분야의 기술 개발 방향과 실제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기조연설에서 현대차그룹의 미래 기술을 실제 제품과 사업으로 연결하는 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현대차는 로보틱스와 자율주행차,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퍼지컬 AI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만프레드 하러 현대차그룹 R&D본부장 사장은 기존 엔지니어링 역량에 AI와 가상 개발 기술을 접목해 차량 개발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박민우 현대차그룹 AVP본부장 사장 겸 42dot 대표는 차량과 공장, 로봇 등 실제 환경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이 지난 17~18일(현지시간) 미국 산호세 맥에너지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HMG 테크 토틀런트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지속 학습하는 퍼지컬 AI 비전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지능적인 모빌리티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김혜인 부사장은 전 세계 75개 이상의 그룹사와 33만 6000여 명의 임직원, R&D 센터로 구성된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혁신 생태계를 소개하고, 글로벌 인재들이 도전적인 과제를 해결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채용 연계 프로그램도 운용했다. 현대차그룹은 현업 채용 담당자와 참가자가 일대일로 대화하는 'HR 커넥트'를 운영하고, 'HMG 글로벌 테크 토틀런트 채용' 후보자를 대상으로 현장 면접도 진행했다.

전시장에는 보스턴다이나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팟', 차세대 모바일 로봇 플랫폼 '모베드', 모셔널의 아이오닉5 로보택시, SDV 아키텍처 'CODA' 등을 선보였다. /양성운 기자 ysw@



metro